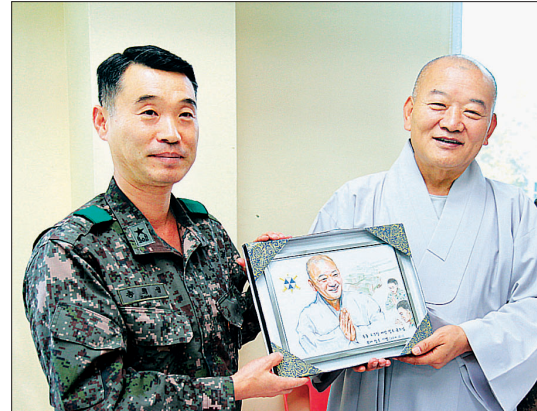




6포병여단 장병들이 조계종 군종교구가 국군의날을 맞아 마련한 자장면 공양에서 즐겁게 자장면을 먹고 있다.



송희섭 준장이 정우 스님에게 캐리커처를 전달하고있다.



K9 자주포 견학 후 여단 관계자들과의 기념사진



아이돌그룹 베스티의 공연은 큰 인기를 끌었다.



NS윤지의 공연과 열광적인 장병들의 환호 모습

걸그룹 공연, 자장면 공양... 병영 스트레스 '홀홀'

조계종 군종교구, 국군의 날 맞아 1000명 자장면 보시

“신병교육대에서 스님이 주신 자장면을 맛보고 정말 힘이 났는데, 이렇게 자대에 와서 국군의날에 자장면을 먹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앞으로 부처님 법을 잘 따르며 군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66회 ‘국군의 날’을 맞아 새내기 군 간부와 병사 1000명에게 자장면을 보시했다. 이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최근 잇따른 군사고로 인한 억눌린 감정을 모두 날려버렸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국군의 날인 10월 1일 찾은 곳은 경기도 연천의 6포병여단. 군혁신문화 주도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부대표장을 받기도 한 곳이다. 자장면 보시는 초급간부와 일병과 이등병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여러분들이 자장면을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라 생각해서 함께 하고자 왔다”며 “오늘 만나서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고 말했다.

자장면은 인기 중시 전문업체에서 만들어, 밖에서 먹던 것과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봉사에 나선 간부 부인들과 구룡사 신도들이 그릇마다 자장면을 넉넉하게 담았지만 힘든 군생활 중에 별미를 접한 장병들은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다시 길게 줄을 썼다. 이에 맞춰 취사장에서는 연이어 자장면이 나왔다. 6포병여단 호국범우사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비구니 호택 스님은 장병들의 식사 자리를 돌아다니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자장면 공양에서는 훈련병 시절 군종교구가 제공한 자장면용 자대 배치 후 다시 맛 본 병사도 있었다.

정연우 이병은 “5사단(신병교육대)에서 자장면을 먹어 정말 좋았는데 또 6포병여단 와서 국군의 날을 맞아 먹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 부처님 법을 잘 따르며 군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육군우수표창 받은 6포병여단서 진행 NS윤지, 베스티 등 걸그룹 초청공연도 새내기 간부, 장병들 함께 '열광'

자장면 공양에 이어 6포병여단장 송희섭 준장은 새내기 간부·장병들과 병영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부대 장병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간부, 장병들과 함께 자장면 공양을 함께한 송희섭 준장은 “병영문화 혁신을 비롯해서 우리 6포병여단이 전국에서 제일가고 또 전군을 선도하는 부대를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6포병 여단측은 장병들이 그린 정우 스님의 캐리커처를 정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정우 스님과 군종교구 관계자들은 오전

10시 포병교육부대를 찾아 생활관에서 장병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정우 스님은 전역이 3개월 남았다는 김대환 병장에게 “3개월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금방 간다. 매주 라면 1개씩 12그릇만 먹으면 된다”며 무탈한 군생활을 기원했다.

또 부대 도서관에서는 “40년 전 장병으로 군부대에 있으며 군법당과 함께 도서관을 만들기도 했다”며 책자 기증을 약속하고 사이버식방에서 PC를 이용하는 장병들을 둘러보기도 했다.

생활관을 둘러본 정우 스님과 군종교구 관계자들은 6포병여단에서 준비한 K9 자주포 등 군장비 소개와 함께 운행 시연도 지켜봤다. 여단 측에서 K9 자주포 탑승을 권했지만 정우 스님은 “시동 한번만 켜도 국민 세금 몇십만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사양했다.

이날 위문행사는 오후에 들어 더욱 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자장면 공양이 끝난 뒤 새내기 간부들과 장병들은 교육관에 모여 가수 NS 윤지와 베스티, wings, 포엘 등 걸그룹의 공연을 함께 즐겼다. 이날 공연에서는 열심히 응원한 장병에게 포상휴가가 주어 더욱 열띤 응원이 펼쳐졌다.

무대에 나선 걸그룹들은 최신 인기가요를 장병들과 함께 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조병진 일병은 “우리 부대가 국군의 날 부대표장을 받은 것이 자랑스럽고, 오늘 행사로 전군 포병인으로서 큰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연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군의날 맞아 군포교 후원 '눈길'

군종교구 천도재·봉은사 등 사찰 동참

이번 66회 국군의날을 앞두고 군 사기진작을 위한 불교계의 행사와 후원활동이 활발히 이어졌다.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9월 29일 육군5사단 광복통일사에서 원심원사와 공동으로 민·관·군 합동 천도대제를 봉행했다.

원심원사 등에서 온 불자들은 백과고지가 위치한 중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5사단 법당 광복통일사에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및 군복무 중 순직한 영령을 추모하고 부대 안녕과 무사고를 기원하였다. 이번 합동 천도대제는 원심원사 주지 정오 스님과 김구선 연천군수, 6·25참전 유공자회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서울 봉은사와 김포 금정사도 군불교 활성화 및 군법당 불사 지원에 정성을 보였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9월 25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2000만원을 전달했다. 봉은사가 전달한 기금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군종특별교구에 지정 기탁돼 교구 발전기금과 20사단 61연대 12전차대대 호국연화사 군법당 신축 불사기금 및 군포교 활동 기금으로 1000만원씩 사용될 예정이다. 봉은사는 특히 호국연화사 법당이 열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금 후원을 약속하고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금했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군종교구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 기금을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봉은사에서 힘 닿는대로 군종교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 금정사(주지 명훈)도 9월 17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사무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군포교 지원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금정사가 전달한 기금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12사단 을지부대 신병교육대 법당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불교계에 새로운 선물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

염불(念佛), 염승(念誦) 모음

■ 염승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바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 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백대참회문, 대불정능염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필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승의법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49재편, 시식·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중국어·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넷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콘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701-6160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3400-6160